

2. 탄생과 성장 - 둔(屯), 몽(蒙)

몽(蒙) ☶☶

몽괘(蒙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둔(屯)은 가득함이고, 둔(屯)은 물건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물건이 나면 반드시 어리다. 그러므로 몽괘(蒙卦)로 받았으니, 몽(蒙)은 어림이니, 물건이 어린 것이다.” 하였다. 둔(屯)은 물건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물건이 처음 나와 어려서 몽매하여 개발되지 못했으니, 몽괘(蒙卦)가 이 때문에 둔괘(屯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간(艮)이 위에 있고 감(坎)이 아래에 있으니, 간(艮)은 산(山)이 되고 그침이 되며, 감(坎)은 물이 되고 험함이 된다. 산(山) 아래에 험함이 있으니, 험함을 만나 그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몽(蒙)의 상(象)이다. 물은 반드시 가는 물건이나 처음 나와서 갈 바가 없으므로 몽(蒙)이 된 것이니, 나아감에 미치면 형통하는 뜻이 된다.

괘사(卦辭): 蒙은 亨하니 匪我求童蒙이라 童蒙求我니 初筮어든 告(곡)하고 再三이면 瀆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

몽(蒙)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이니, 처음 묻거든 고해 주고 두 번 세 번 물으면 번독하다.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을 것이니, 정(貞)함이 이롭다.

단전(彖傳): 象曰 蒙은 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蒙亨은 以亨行이니 時中也요 匪我求童蒙童蒙求我는 志應也요 初筮告은 以剛中也요 再三瀆瀆則不告은 瀆蒙也일새 니 蒙以養正이 聖功也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몽(蒙)은 산(山)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하고 그친 것이 몽(蒙)이다. ‘몽형(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함이니, 때에 맞고 중(中)을 얻었기 때문이요,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은 뜻이 응(應)함이요,

처음 묻거든 고해줌은 강중(剛中)하기 때문이요, 재삼(再三) 물으면 번독함이니,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음은 몽(蒙)을 번독하게 하기 때문이니, 어릴 때에 바름을 기르며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이다.”

상전(象傳): 象曰 山下出泉이 蒙이니 君子이하야 果行하며 育德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山) 아래에서 샘물이 나옴이 몽(蒙)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德)을 기른다.”

효사(爻辭):

初六은 發蒙하되 利用刑人하여 用說(脫)桎梏이니 以往이면 吝하리라

초육(初六)은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象曰 利用刑人은 以正法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법(法)을 바로잡는 것이다.”

九二는 包蒙이면 吉하고 納婦면 吉하리니 子克家로다

구이(九二)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

象曰 子克家是 剛柔接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 일을 잘 다스림은 강유(剛柔)가 접하기 때문이다.”

六三은 勿用取女니 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육삼(六三)은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금부(金夫)[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象曰 勿用取女는 行不順(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실을 삼가지 않기 때문이다.”

六四는 困蒙이니 吝하도다

육사(六四)는 몽(蒙)에 곤궁함이니 부끄럽도다.

象曰 困蒙之吝은 獨遠實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곤몽(困蒙)의 부끄러움은 홀로 실(實)[양(陽)]과 멀기 때문이다.”

六五는 童蒙이니 吉하니라

육오(六五)는 동몽(童蒙)이니, 길하다.

象曰 童蒙之吉은 順以巽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동몽(童蒙)의 길함은 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上九는 擊蒙이니 不利爲寇요 利禦寇하니라

상구(上九)는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

象曰 利用禦寇는 上下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침략을 막음이 이로움은 상하(上下)가 순하기 때문이다.”

3. 태평의 시대와 암흑의 시대 - 태(泰), 비(否)

태(泰) ≡≡≡

태괘(泰卦)는 〈서괘전(序卦傳)〉에 “실행하여 태연한 뒤에 편안하다. 그러므로 태괘(泰卦)로 받았다.” 하였다. 실행함이 제자리를 얻으면 태연해지고 태연하면 편안하니, 태괘(泰卦)가 이 때문에 이괘(履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곤음(坤陰)이 위에 있고 건양(乾陽)이 아래에 있으니, 천지(天地) 음양(陰陽)의 기운이 서로 사귀어 화(和)하면 만물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통태(通泰)가 된 것이다.

괘사(卦辭): 泰는 小往하고 大來하니 吉하여 亨하니라

태(泰)는 소(小)[음(陰)]가 가고 대(大)[양(陽)]가 오니, 길(吉)하여 형통하다.

단전(彖傳): 象曰 泰小往大來吉亨은 則是天地交而萬物通也며 上下交而其志同也라
內陽而外陰하며 內健而外順하며 內君子而外小人하니 君子道長하고 小人道消也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태소왕대래길형(泰小往大來吉亨)’은 천지(天地)가 사귀어 만물이 통태(通泰)하고, 상하(上下)가 사귀어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다.

양(陽)이 안에 있고 음(陰)이 밖에 있으며 굳셈이 안에 있고 순함이 밖에 있으며 군자(君子)가 안에 있고 소인(小人)이 밖에 있으니, 군자(君子)의 도(道)가 자라고 소인(小人)의 도(道)가 사라지는 것이다.”

상전(象傳): 象曰 天地交泰니 后以하여 財(裁)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여 以左右民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천지(天地)가 사귀어 태(泰)이니, 군주가 보고서 천지(天地)의 도(道)를 재정(財成)하며 천지(天地)의 마땅함을 보상(輔相)하여 백성을 좌우(佐佑)한다.”

효사(爻辭):

初九는 拔茅茹라 以其彙征이니 吉하니라

초구(初九)는 락풀의 엉켜있는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 동류들과 함께 감이니, 길(吉)하다.

象曰 拔茅征吉은 志在外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발모정길(拔茅征吉)’은 뜻이 밖에 있는 것이다.”

九二는 包荒하며 用馮河하며 不遐遺하며 朋亡하면 得尚于中行하리라

구이(九二)는 거친 것을 포용해 주고, 황하(黃河)를 맨몸으로 건너는 용맹을 쓰며, 멀리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붕비(朋比)[붕당(朋黨)]을 없애면 중행(中行)[중도]에 배합하리라.

象曰 包荒得尚于中行은 以光大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포항득상우중행(包荒得尚于中行)’은 빛나고 큰 것이다.”

九三은 无平不陂며 无往不復이니 艱貞이면 无咎하여 勿恤이라도 其孚라 于食에 有 福하리라

구삼(九三)은 평평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으니, 어렵게 여기고正道(正道)를 지키면 허물이 없어 근심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얻어 먹음에 복(福)이 있으리라.

象曰 无往不復은 天地際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가고서 돌아오지 않음이 없음은 천지(天地)가 교제하는 것이다.”

六四는 翩翩히 不富以其隣하여 不戒以孚로다

육사(六四)는翩翩(翩翩)히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웃들과 함께 하여 경계하지 않아도 서로 믿도다.

象曰 翩翩不富는 皆失實也요 不戒以孚는 中心願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翩翩불부(翩翩不富)’는 모두 실(實)을 잃었기 때문이요, 경계하지 않아도 믿음은 중심(中心)에 원하기 때문이다.”

六五는 帝乙歸妹니 以祉며 元吉이리라

육오(六五)는 제을(帝乙)이 여동생[어린 딸]을 시집보냄이니, 이로써 복을 받을 것이며 크게 선(善)하고 길(吉)하리라.

象曰 以祉元吉은 中以行願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이지원길(以祉元吉:이로써 복을 받을 것이며 크게 길하리라.)’은 중도(中道)로써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上六은 城復于隍이라 勿用師요 自邑告命이니 貞이라도 吝하니라

상육(上六)은 성(城)이 무너져 황(隍)[垓字]으로 돌아감이니 군대를 쓰지 말 것이지요, 읍(邑)으로부터 고명(告命)할 것이니 정(貞)하더라도 부끄럽다.

象曰 城復于隍은 其命이 亂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성(城)이 무너져 해자로 돌아감은 명령을 요란스럽게 내리는 것이다.”

비(否) ䷋

비괘(否卦)는 〈서괘전(序卦傳)〉에 “태(泰)는 통함이니, 물건은 끝내 통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비괘(否卦)로 받았다.” 하였다. 물건의 이치는 가고 오니, 통태(通泰)가 극(極)에 이르면 반드시 비색해지니, 비괘(否卦)가 이 때문에 태괘(泰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 천지(天地)가 서로 사귀어 음양(陰陽)이 화창하면 태(泰)가 되고, 하늘이 위에 처하고 땅이 아래에 처하면 이는 천지(天地)가 가로막혀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비(否)가 된 것이다.

괘사(卦辭): 否之匪人이니 不利君子貞하니 大往小來니라

비(否)는 인도(人道)가 아니니, 군자(君子)의 정(貞)[정도(正道)]에 이롭지 않으니, 대(大)[양(陽)]가 가고 소(小)[음(陰)]가 온다.

단전(彖傳): 象曰 否之匪人不利君子貞大往小來는 則是天地不交而萬物不通也며 上下不交而天下无邦也라 內陰而外陽하며 內柔而外剛하며 內小人而外君子하니 小人道長하고 君子道消也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비지비인(否之匪人) 불리군자정(不利君子貞) 대왕소래(大往小來)’는 천지(天地)가 사귀지 않아 만물이 통하지 못하고, 상하(上下)가 사귀지 않아 천하(天下)에 나라가 없는 것이다. 음(陰)이 안에 있고 양(陽)이 밖에 있으며, 유(柔)가 안에 있고 강(剛)이 밖에 있으며, 소인(小人)이 안에 있고 군자(君子)가 밖에 있으니, 소인(小人)의 도(道)가 자라나고 군자(君子)의 도(道)가 사라지는 것이다.”

상전(象傳): 象曰 天地不交否니 君子이하어 儉德辟(避)難하여 不可榮以祿이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천지(天地)가 사귀지 않음이 비(否)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덕(德)을 검약(儉約)하여 난(難)을 피해서 녹(祿)으로써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효사(爻辭):

初六은 拔茅茹라 以其彙로 貞이니 吉하여 亨하리라

초육(初六)은 띠풀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 동류들과 더불어 정고(貞固)히 지킴이니, 길(吉)하여 형통하다.

象曰 拔茅貞吉은 志在君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발모정길(拔茅貞吉)’은 뜻이 군주(君主)에게 있는 것이다.

六二是 包承이니 小人은 吉하고 大人은 否라야 亨하리라

육이(六二)는 품고 있는 것이 순히 받드는 것이니, 소인(小人)은 길(吉)하고 대인(大人)은 비색하니, 형통하다.

象曰 大人否亨은 不亂群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인비형(大人否亨)’은 소인(小人)의 무리에게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六三是 包羞라

육삼(六三)은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 것이다.

象曰 包羞는 位不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포수(包羞)’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九四是 有命이면 无咎하여 疇離祉리라

구사(九四)는 군주(君主)의 명령에 맡기면 허물이 없어 무리가 모두 복을 누리리라.

象曰 有命无咎는 志行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유명무구(有命无咎)’는 뜻이 행해지는 것이다.”

九五是 休否라 大人의 吉이니 其亡其亡이라야 繫于苞桑이리라

구오(九五)는 비색함을 그치게 하는지라 대인(大人)의 길(吉)함이니, 망할까 망할까 하고 두려워하여야 총생(叢生)하는 뽕나무에 매어놓듯이 편안하리라.

象曰 大人之吉은 位正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인(大人)이 길(吉)함은 지위가 바로 해당되기 때문이다.”

上九는 傾否니 先否하고 後喜로다

상구(上九)는 비색함이 경복(傾覆)됨이니 먼저는 비색하고 뒤에는 기쁘다.

象曰 否終則傾하나니 何可長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비(否)가 끝나면 기울게 되니, 어찌 장구하겠는가.”

4. 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 - 동인(同人), 대유(大有)

동인(同人) ≡ ≡ ≡

동인괘(同人卦)는 〈서괘전(序卦傳)〉에 “사물은 끝내 비색할 수 없으므로 동인괘(同人卦)로 받았다.” 하였다. 천지(天地)가 사귀지 못하면 비(否)가 되고 상하(上下)가 서로 함께 하면 동인(同人)이 되니, 비괘(否卦)와 뜻이 상반된다. 그러므로 서로 다음이 된 것이다. 또 세상이 비색할 때에는 반드시 남과 힘을 함께 하여야 구제할 수 있으니, 동인괘(同人卦)가 이 때문에 비괘(否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건(乾)이 위에 있고 이(離)가 아래에 있으니, 두 상(象)을 가지고 말하면 하늘은 위에 있는 것인데 불의 성질이 타올라가서 하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동인(同人)이라 하였고, 두 체(體)를 가지고 말하면 오(五)가 정위(正位)에 거하여 건(乾)의 주체가 되고 이(二)가 이(離)의 주체가 되어 두 효(爻)[오효(五爻)와 이효(二爻)]가 중정(中正)으로 서로 응해서 상하(上下)가 서로 함께 하니, 동인(同人)의 뜻이다. 또 괘(卦)에 오직 한 음(陰)이 있어서 여러 양(陽)이 함께 하고자 하는 바이니, 또한 동인(同人)의 뜻이다. 다른 괘(卦)에도 진실로 한 음(陰)인 것이 있으나, 동인(同人)의 때에 있어서는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서로 응하고 하늘과 불이 서로 함께 하므로 그 뜻이 큰 것이다.

괘사(卦辭): 同人于野면 亨하리니 利涉大川이며 利君子의 貞하나라

사람과 함께 하되 들에서 하면 형통하리니,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로우며 군자(君子)의 정(貞)으로 함이 이롭다.

단전(彖傳): 象曰 同人은 柔得位하며 得中而應乎乾할새 曰同人이라 同人于野亨利涉大川은 乾行也요 文明以健하고 中正而應이 君子正也니 唯君子야 爲能通天下之志하나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동인(同人)은 유(柔)[육이(六二)]가 정위(正位)를 얻었으며 중(中)을 얻어 건(乾)[구오(九五)]에 응하므로 동인(同人)이라 한 것이다. ‘동인우야형(同人于野亨) 이섭대천(利涉大川)’은 건(乾)의 행실이요, 문명(文明)하고 굳건하며 중정(中正)으로 응함이 군자(君子)의 정도(正道)이니, 오직 군자(君子)여야 천하의 마음을 통할 수 있다.”

상전(象傳): 象曰 天與火同人이니 君子이하야 類族으로 辨物하나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늘과 불이 동인(同人)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유족(類

族)으로 사물을 분별한다.”

효사(爻辭):

初九는 同人于門이니 无咎리라

초구(初九)는 사람과 함께 하되 문을 나가서 하니,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出門同人을 又誰咎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문을 나가 남과 함께 함을 또 누가 허물하겠는가.”

六二는 同人于宗이니 吝하도다

육이(六二)는 남과 함께 하되 종당(宗黨)과 하니, 부끄럽다.

象曰 同人于宗이 吝道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남과 함께 하되 종당(宗黨)과 하니, 부끄러운 도(道)이다.”

九三은 伏戎于莽하고 升其高陵하여 三歲不興이로다

구삼(九三)은 병사(兵士)를 풀 속에 숨겨두고 높은 구릉에 올라가서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함이로다.

象曰 伏戎于莽은 敵剛也요 三歲不興이어니 安行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병사(兵士)를 숲 속에 숨겨둔은 적이 강하기 때문이요, 3년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니, 어떻게 행하겠는가.”

九四는 乘其墉하되 弗克攻이니 吉하니라

구사(九四)는 담에 올라가나 공격하지 못하니, 길(吉)하다.

象曰 乘其墉은 義弗克也요 其吉은 則困而反則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담에 올라감은 의리상(義理上)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요, 길(吉)함은 곤(困)하여 법칙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九五는 同人이 先號咷而後笑니 大師克이라야 相遇로다

구오(九五)는 남과 함께 하되 먼저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으니, 큰 병력으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

象曰 同人之先은 以中直也요 大師相遇는 言相克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동인(同人)이 먼저 울부짖음은 중심(中心)이 곧기 때문이요, 큰 병력으로 이겨야 서로 만남은 서로 이김을 말한 것이다.”

上九는 同人于郊나 无悔니라

상구(上九)는 남과 함께 하기를 교외(郊外)에서 하나 뉘우침이 없다.

象曰 同人于郊는 志未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남과 함께 하되 교외(郊外)에서 함은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대유(大有) ≡≡

대유괘(大有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남과 함께 하는 자는 물건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대유괘(大有卦)로 받았다.” 하였다. 남과 함께 하는 자는 물건이 돌아오는 바이니, 대유괘(大有卦)가 이 때문에 동인괘(同人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괘(卦)됨이 불이 하늘 위에 있으니, 불이 높은 곳에 있으면 밝음이 먼 곳까지 미쳐서 만물의 무리가 비취 보이지 않음이 없으니 대유(大有)의 상(象)이 되고, 또 한 음유(陰柔)가 존위(尊位)에 거하고 여러 양(陽)이 함께 응하니, 존위(尊位)에 거하여 유순함을 잡음은 물건이 돌아오는 바이다. 상하(上下)가 응함이 대유(大有)의 뜻이 되니, 대유(大有)는 성대하고 풍성하게 소유한 것이다.

괘사(卦辭): 大有는 元亨하니라

대유(大有)는 크게 선(善)하여 형통하다.

단전(彖傳): 象曰 大有는 柔得尊位하고 大中而上下應之할새 曰大有니 其德이 剛健而文明하고 應乎天而時行이라 是以元亨하니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대유(大有)는 유(柔)가 존위(尊位)를 얻고 크게 중(中)하며 상하(上下)가 응하므로 대유(大有)라 하였다. 그 덕(德)이 강건(剛健)하고 문명(文明)하며 하늘에 응하여 때에 맞게 행한다. 이 때문에 크게 선(善)하고 형통한 것이다.”

상전(象傳): 象曰 火在天上이 大有니 君子以하여 遏惡揚善하여 順天休命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大有)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악(惡)을 막고 선(善)을 드날려 하늘의 아름다운 명(命)을 순종한다.”

효사(爻辭):

初九는 无交害니 匪咎나 艱則无咎리라

초구(初九)는 해(害)에 간섭됨이 없으니,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나 간난(艱難)[어렵게 여기고 조심함]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大有初九는 无交害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유(大有)의 초구(初九)는 해(害)에 간섭됨이 없는 것이다.

九二는 大車以載니 有攸往하면 无咎리라

구이(九二)는 큰 수레로써 실음이니, 갈 바를 두면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大車以載는 積中不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큰 수레로 실음은 가운데에 많이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九三은 公用亨[享]于天子니 小人은 弗克이니라

구삼(九三)은 공(公)이 천자(天子)께 물건을 올림이니, 소인(小人)은 능하지 못하다.

象曰 公用亨于天子는 小人은 害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공용형우천자(公用亨于天子)는 소인(小人)은 해로우리라.”

九四는 匪其彭(방)이니 无咎리라

구사(九四)는 지나치게 성하게 하지 않음이니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匪其彭无咎는 明辨皙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지나치게 성하게 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는 것은 명변(明辨)함이 분명하다.

六五는 厥孚交如니 威如면 吉하리라

육오(六五)는 그 믿음이 서로 사귀니, 위엄이 있으면 길(吉)하리라.

象曰 厥孚交如是 信以發志也요 威如之吉은 易而无備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그 믿음이 서로 사귀는 신(信)으로써 뜻을 계발(啓發)함이고, 위엄이 있으면 길(吉)한 것은 쉽게 여겨 대비함이 없기 때문이다.”

上九는 自天祐之라 吉无不利로다

상구(上九)는 하늘로부터 도우므로 길(吉)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象曰 大有上吉은 自天祐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유(大有)의 상(上)이 길(吉)한 것은 하늘로부터 돕기 때문이다.